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배움의 後園



임효경
전 완도중 교장

게 눈이 쌓여 방판이 되어있는 밀재 오르막길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내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 서고 제동이 되지 않았다. 중앙 분리선을 넘어 갓길에 세워진 낭떠러지 보호 기둥을 받치고 차가 멈췄다. 반대편에서 차가 왔더라면 어땠을까?

‘눈이 많이 내리네~ 내일 아침 길이 어쩔지 모르겠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도 이젠 안녕이다. 졸음에 겨운 눈으로 자동차 시동을 걸던, 하늘의 도우심을 믿고 나서던 길들도 이젠 안녕이다.

지난해 극도로 덥던 여름날이 있었으니, 극도로 추운 겨울날이 오는 것이다. 서러워할 것도 없다. 예측 가능한 현상이었다. 지금 이렇게 추운 날이 계속되는데 뜨거운 여름이 올까 싶지만, 금방 계절은 변하고 또 반복될 것이다. 우리는 늘 망각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이다. 어리석은 우리이지만 세상은 전진해 나간다. 인생은 돌고 돈다. 순리대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 내가 서 있다.

어릴 적엔 이런 날이 올까 했었다. 어리지도 않던 대학생 시절에 큰 언니가 40살이라는 말을 듣고,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겠구나, 생각했었다. 그러던 내가 지금 정년퇴직자이다.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나만의 공간에서 평평 내리는 눈을 객관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다는 나 자신이 약간 낯설기는 하지만, 어린 시절에 그러려니 했던 비감(悲感)은 없다.

이젠 한없이 퍼붓는 설경이 지겹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이 시대 최고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 안에서 바라다보니, 예전에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면 아삭하던 하늘에 대한 미운 감정도 눈 녹듯 사라졌다. 현장에 있어야 느낄 수 있는 강렬함이 사라졌다. 창밖을 내다보니 눈길을 종종거리며 어딘가로 부지런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따뜻하게 추위를 이겨낼 방법을 간구하고 나서는 길이겠지? 알지만 자체 발열을 하는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기

능성 방한복을 착용하고 나섰겠지?

나의 감각에서 절실한 현장감이 사라져 가고 있다. 이것이 아쉬운가? 헛헛한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현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살아 돌아오는 자의 감각, 그것은 짜릿하기도 했다. 어떤 순간 학교의 위험하고 살벌한 지경에서 발휘되는 우리의 기지(奇智)는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살아 나갈 방책이었지만, 점점 타자에 대한 혹은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자라나서, 종국엔 그들에 대한 헌신이었다.

2월 말이면 베이비 붐 시대의 교직 정년퇴직자들이 제2인생 무대로 쏟아져 나온다. 수고 참 많으셨다. 축하드린다. 그동안 움아뻐던 체제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해방과 스스로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가는 창조의 기쁨을 힘껏 누리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6개월 선배(?)로서 그들이 살벌하기도 했지만 달콤하기도 했던 현장의 끈을 놓고 어떻게 자체의 힘으로 버텨낼까 걱정이기도 하다. 그 절실한 자리에서 헛헛함이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못된 감정에 휩싸이면, 종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105세 연세에도 건강하게 우리 시대 어르신으로 활약하는, 노(老)철학자 김형석 선배가 1960~70대 후배들에게 하신 말씀을 타산지석 삼아 본다.

65세에서 75세 사이가 인생의 황금기이다. 75세 이상이 인생의 절정기이다. 살아보니, 인생의 가장 절정기는 절정 30대 청년기가 아니라, 인생의 매운맛, 쓴맛 다 보고 무엇이 참으로 소중한지를 진정 음미할 수 있는 60대 이후이다. 누가 함부로 인생의 노쇠를 논하는가?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의 드라마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다.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생하는 것,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진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는다. (김형석의 ‘속삭임’ 中)

욕심 줄이기



지금 정국과 맞물려 행정고시 출신 전직 공무원 노한동이 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란 책이 화제다.

이 책에서 그는 공직사회의 무능한 일상과 윗사람의 심기를 맞추는데 전적으로 집중된 업무 평가 시스템, 바뀌는 정권과 여론에 갈피를 못 잡는 조직, 혈세라면서 예산 규모를 늘리기만 하면 성과로 평가받는 분위기 등 공무원 조직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이 공직사회 전부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하는 가운데 소신 있는 고위공직자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어렸을 적에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아이가 “나는 대통령이, 의사가, 검사, 판사가 꿈이다”라고 먼저 답을 했던 것 같다. 왜냐고 물으면 국민을 위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자리에 연연하는 처세를 보면 내심 사명감보다 지위와 권력에 대한 열망이 더 컸던 것은 아닌가 싶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까지 권위적이고 출세 지향적인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에서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보면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기보다 부정한 부동산 취득과 자녀 위장 전입 등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그만큼 국무위원으로서 도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

아가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어떤 봉사를 했는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눔을 실천했는지? 을 따져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나눔과 봉사활동이 제도적으로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면 좀 더 청렴한 공직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다.

이타적인 나눔은 공직자의 청렴과도 연관된다. 사전에 청렴은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고로 가진 것을 나누는 기부와 봉사, 헌혈과 같은 나눔의 실천은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남을 배려하는 나눔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서로를 존중하고 역사사지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나눔 중에서 많은 공직자가 생명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 헌혈 700회를 달성하시고 공익광고까지 찍은 67세의 강영선 씨는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었고 이보다 훨씬 앞서 달성하시고 한국 기네스북에 오른 손흥식 씨도 광주 통계청 공무원이었다.

연달아 300회, 500회를 달성하는 군인, 경찰, 교사들도 속출하고 있다.

‘미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행복해지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 소유물을 늘리거나 욕망을 줄이거나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먼저 경제적인 부를 늘리면 행복하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아도 욕망이 줄어들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반면 바라는 욕망을 줄이면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려면 소유보다 욕망을 줄여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는 지혜가 더 필요할 것 같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욕심을 줄이고 서로 배려하는 나눔을 실천할 때 개개인의 행복은 물론 지금의 갈등과 분열된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원장

@jinilbo |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 E-Mail: jeb@jinilbo.com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